

11

2019

월간

중국농업 브리프



농정 이슈

중국의 새(新型) 도시화 정책과 미래 추세 1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18

소비자물가 20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21

대 세계 식량 수출입 23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26

농정 이슈

◆ 중국의 새(新型) 도시화 정책과 미래 추세¹⁾

1. 도시화 정의에 대한 이해

-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城鎮化)에 대해서는 2012년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²⁾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음. 생태문명 이념과 원칙을 도시화의 전 과정에 응용하여 집약, 스마트, 녹색, 저탄소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도시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중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도시화를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내세운 나라이며 도시화의 핵심은 농촌인구가 도시(소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임. 중국은 현재까지 호적(戶口) 제도가 존재하므로 국민이 완전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것을 기반으로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부터는 “농민공의 시민화”에 대해 제기하기 시작함.
- 중국에서의 도시화는 여전히 도시의 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를 농촌에 보급하는 과정이며 토지를 수용해야만 도시화를 추진할 수 있음. 이런 상황에 기초하여 “도농발전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농계획, 기초시설, 공공서비스 등 면에서 일체화를 추진”함. 체제 장벽이 비교적 약하고 인구 규모가 작아 쉽게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적된 갈등이 적어 개혁이 어렵지 않고 추적연구도 쉬어 소도시 개혁은 쉽게 추진할 수 있음.
- 중국의 도시와 외국의 도시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 중국은 중국 특색의 도시관리체제를 지니고 있는데, 중국의 도시는 행정등급이 존재하고, 상급의 도시가 하급도시를

1) 이 자료는 제21회 한중농업포럼에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도시개혁발전중심의 판이(范毅)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보완하여 제작성한 것임.

2)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의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개최하는 최고위급 경제회의임. 1994년부터 매년 1회 개최, 통상적으로 매년 11월~12월에 열림. 주요 임무는 첫째, 당해연도 경제업무 성과 총결, 둘째, 최근 국내외 경제정세 분석, 셋째, 다음해 거시경제 발전계획 수립 등임.

관리하며, 도시가 농촌을 관장하고 있으며 도시는 비(非)개방 주의를 실행하고 있음. 이쯤에서 도시화와 현대화의 개념을 구별해야 하는데 도시화와 현대화는 동기화된 것이 아님. 선진국의 경우 수백 년 동안의 도시화를 거쳐 현대화에 진입했고 중등수준의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여전히 현대화와는 거리가 있음. 중국의 직할시와 일부 중점도시는 현대화를 목표로 세웠으나 대부분 도시와 소도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황임.

- 도시화와 도시건설의 개념에 대해서도 구별해야 하는데 대부분 쉽게 하는 오해가 도시화를 도시현대화로 이해하거나 도시건설로 이해하는 것임. 이러한 오해들로 인해 농민이 도시로 진출해 취업하고 정착하는 문턱이 높아졌으며 도시화의 속도를 지연시켰음.
- 도시화와 도시발전에 대해서도 구분이 필요함. 도시화와 도시발전은 해결하려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름. 도시발전의 경우 도시 주민 생활 수준의 제고, 주민의 취업과 소득의 증가, 도시의 기초시설 건설, 공공서비스와 사회발전에 초점을 둠. 반면에 도시화는 농민이 도시에 진출하는 방법, 도시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농촌지역에 보급할 것인가, 외지의 농민이 어떻게 차츰 도시 공공서비스체계에 진입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음. 현재 실천과정에 도시발전을 더 중요시하면서 도시발전으로 도시화를 대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인구 도시화에 대해 제기한 정책은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음.

표 1. 인구도시화 정책

연도	사건	내용
2013	중앙도시화업무회의 (中央城镇化工作会议)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화를 추진하고 도시진출 및 취업에 성공한 농민들의 호구문제를 해결하며 농민이 도시에 스며들 수 있는 소질과 능력을 높인다. 건제진(建制鎮)과 소도시의 호구제한을 풀고 순서대로 중등도시의 호구제한도 풀어주며 대도시의 호구조건은 합리하게 정하며 대도시 인구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2014	국가신형도시화계획 (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를 추진하며 합리적인 인구이동을 유도하고 농업전임인구의 시민화를 질서 있게 추진하며 도시 기본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주인구의

		보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호적인구의 도시화비율은 45%정도에 달하며 호적인구의 도시화비율과 상주인구의 도시화비율의 차이는 2% 이내로 줄이며 1억 명 정도의 농업전입인구와 기타상주인구가 모두 도시에 호구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취업과 주거지(임대포함)등을 전제조건으로 건제진과 소도시의 호구제한을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
2014	호적제도 개혁을 진일보 진행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를 구분하던 것과 이와 함께 파생되었던 정식호구와 임시호구사이에 존재했던 남인호구(藍印戶口)등 호구유형을 취소하고 모두 주민호구로 통일하여 등기한다. 도시에 정착한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2016	신형 도시화 건설을 진일보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深入推进新型城镇化建设的若干意见)	농촌지역학생의 진학과 입대를 통해 도시에 진출하는 인구, 도시에 취업하고 거주기간이 5년이 넘는 인구와 전 가족이 도시로 이주한 농업전입인구 및 신시대 농민의 호구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고교졸업생과 기술자, 직업학교졸업생, 유학 후 귀국인원에 대한 호구제한을 전면적으로 풀어준다.
2016	거주증 관리정지 조례(居住证暂行管理条例)	거주증을 소지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규정. 단계별 권리 메커니즘을 세움 포인트 적립식 호구실시통로를 세움.

○ 인문·환경친화적(녹색) 스마트 도시건설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음.

표 2. 인문화·환경친화적인 스마트도시 건설

유형	사건	내용
인문도시	2014년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년)	옛 도시 개조 중에 역사문화유산과 민족문화스타일, 전통적인 모습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 새로운 도시, 새로운 구역의 건설과정에 전통적인 문화요소를 인입하고 도시의 고유한 자연 인문특징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신경 쓴다. 역사문화고성, 마을, 거리, 민속마을의 문화자원에 대한 발굴과 문화생태의 전체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도시문화를 보존.
	2015년 중앙도시업무회의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전파하며 도시역사의 문맥을 이어나가며 선조의 문화유산을 보호. 자체의 역사전통과 구역문화, 시대적요구와 결부해 고유한 도시정신을 만들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세우며 사람들의 마음을 응집.

녹색 도시	2014년 국가 신형도시 화계획(2014-2020년)	녹색 에너지, 녹색 건축물, 녹색 교통, 산업단지의 순환개조, 도시환경에 대한 종합관리, 녹색 신생활운동 등.
	2015년 중앙도시사업회	도시의 발전은 생산공간, 생활공간, 생태공간의 내적연계를 잘 파악하고 생산공간의 집약과 효과, 생활공간의 편안함, 산 좋고 물 좋은 생태환경을 실현,
	2016년 중공중앙, 국무원의 도시계획건설관리 사업을 더 강화할 것에 대한 의견	건축의 에너지 절약기술을 보급. 도시에너지절약프로젝트를 실시. 도시의 자연생태를 회복. 오수와 대기오염을 관리. 쓰레기종합관리를 강화
스마트 도시	2013년 국무원의 ‘정보소비의 내부수요를 확대할 것에 대한 의견’	조건에 부합되는 도시에서는 지혜도시를 시범운행. 공용설비시설의 스마트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스마트 배전망, 스마트교통, 스마트 수도산업, 스마트 국토, 스마트 물류 등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에 실현. 여러 시장주체들이 공동으로 스마트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
	2014년 국가신형도시 화계획(2014-2020년)	사물 기반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기술의 혁신과 응용을 추진하고 도시의 경제와 사회발전의 융합을 실현. 정보망, 데이터센터 등 정보기초시설 건설을 강화. 부문, 분야, 지역을 뛰어넘는 정부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추진, 정보자원의 사회화 개발이용을 강화, 스마트 정부응용과 신형의 정보서비스를 추진
	2014년 8대부서의 스마트도시의 건강한 발전을 지도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	과학적으로 스마트도시건설의 톱 레벨 디자인을 정하고 정보자원 개발공유를 확실하게 늘리고 인터넷 정보안전관리와 능력건설 등 면에서 스마트도시에 대해 제기
	2016년 국무원의 “인터넷+정부서비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것에 대한 의견	신형의 스마트도시건설을 추진. 인터넷, 사물 기반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기술에 대한 혁신응용. 전체적인 관리를 강화, 실제적인 효과를 중시, 신형의 스마트도시를 건설할 때 등급과 종류를 구분. 빅데이터를 보조도구로 사용해 도시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세우고 국민생활서비스의 스마트 응용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전력, 가스, 수도산업, 물류 등 공공기초시설의 스마트화 수준을 높임. 등급과 종류를 나누어 스마트도시를 나누는 것을 시범운행

○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의거 도시화 발전의 질을 제고시키고, 인구의 도시화 공간전

환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체계는 다음 표에 나타나 있음.

표 3. 인구의 도시화 공간전환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체계

연도	사건	내용
2016년	13·5 계획요강	재정의 이전지불과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를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도시건설용지의 증가와 농업이전인구의 호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을 세우며 재정건설자금이 도시기초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액수와 도시가 농업이전인구의 호구를 흡수하는 수량을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을 건립.
2016년	국무원의농업이전인구시민화를지지하면서 실시하는재정정책에대한통지	중앙과 성급 재정부문에서 취업전문자금을 배치할 때 도시상주인구와 도시의 새로 증가된 취업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가중치를 설정. 중앙재정에서 농업인구 시민화 장려메커니즘을 설립. 균형성이전지불은 거주증을 소지한 인구를 대상으로 기본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 현금 기본재력보장 메커니즘은 거주증을 소지한 인구를 고려.
2016년	4대부서의연결문서	농업이전인구를 흡수하는 양에 근거해도시의신설건설용지의규모를합리하게 결정. 토지이용의 전체적인 계획과 지난 한해의 도시호구해결인구의 수량에 따라 각종신설건설용지계획을 합리하게 정하고 새로 도시에 진출하는 인구의 토지수요를 보장해야함.
2017년	제19차전국인민대표대회보고	도농의 융합발전체제메커니즘을 건립
2018년	국가농촌진흥전략계획(2018-2022년)	체제 메커니즘의 폐단을 해결,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 정부의 작용발휘, 도시와 농촌요소의 자유로운 유동, 평등한 교환을 추진,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시발전을 추진, 도농의 상호촉진, 상호보충, 전면적인 융합, 공동번영의 새로운 도농관계를 형성

2. 도시화 전략을 제기하게 된 원인

- 중국의 도시화 전략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제15기 3중전회에서 소도시와 대전략을 제기하였고, 제16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농촌경제를 번영시키고 도시화

를 가속화 하기 위해 중국 특색의 도시화 길을 제기했으며, 제17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정의 도시군을 제기했음.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 하는 과정에 도시화를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핵심으로 삼았고, 제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지역 발전과 농촌진흥 속에 도시화 발전의 내용을 다루었음.

○ 중국에서 도시화 전략을 내세운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도시화는 삼농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농민 수를 줄이는 대신 농민을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농민 1인당 점유자원이 늘어나고 농업의 규모화 경영을 촉진하며 농촌의 봉쇄를 타파하고 각종 농업요소의 이동을 추진하며 농산물 수요 증가와 품질 개선을 통해 농민의 소득증대를 실현할 수 있음.

② 도시화는 내부수요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음.

- 2020년에는 도시화 비율이 60% 수준에 달할 것이며 앞으로 1억여 명의 농민공이 추가로 도시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며 여기에 기존의 2.2억 명의 농민공과 7000명에 육박하는 도농 유동인구를 더하면 농민공의 총량은 4억 명을 초과함.
- 이중 1/3의 인구가 유입도시의 새로 건설한 거주지로 주거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최소 1억에 달하는 주거지 문제, 인테리어 자재와 내구재의 소비욕구를 촉발하게 함. 게다가 도시화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주민의 앵겔계수에 따라 계산할 경우 2011년 농민공의 연평균 1인당 소비지출은 3000위안이 는 것으로 보임. 2011년의 통계수치에 의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은 2.1억 명이며 연간 소비지출은 6000억 위안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8개 성에 대한 조사결과, 농민공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 의료보험, 도시기초시설 및 주거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비용은 일인당 연평균 10만 위안으로 전체 농민공의 시민화에 드는 비용은 34조 위안에 달할 것이며 사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1/3을 제외하면 투자항목은 2/3에 달함. 즉 투자액은 약 22조 위안에 달한다는 것임. 쉽게 말하면 8년 내 각종 도시화 정책이 시행된다면 최소 22조 위안에 달하는 투자를 자극하게 됨. 도시화가 진행된다면 교통의 발전도 유도하게 됨.
- 지역의 중심도시를 주축으로 하고, 연관 주요 도시를 중점으로 광범위한 국가 종합 운송 통로를 건설하고 성 소재지 도시와 대도시, 중등도시가 연결된 입체적인 쾌속

여객운송망을 기본적으로 형성하며 중추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사용량이 많은 간선 및 지선을 위한 전문공항도 건설함. 2015년에 이르러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거의 모두가 국가쾌속철도망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인구가 20만 이상인 도시는 거의 모두 국가고속도로망에 가입하게 되었음. 2011년 연말 기준, 미국의 공항은 총 19786개로서 그중 대외적으로 개방된 공항은 5171개, 개인소유의 공항은 14615개였으나 2010년 중국의 민용운송공항은 총 178개로서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임.

③ 도시화는 도시의 발전을 촉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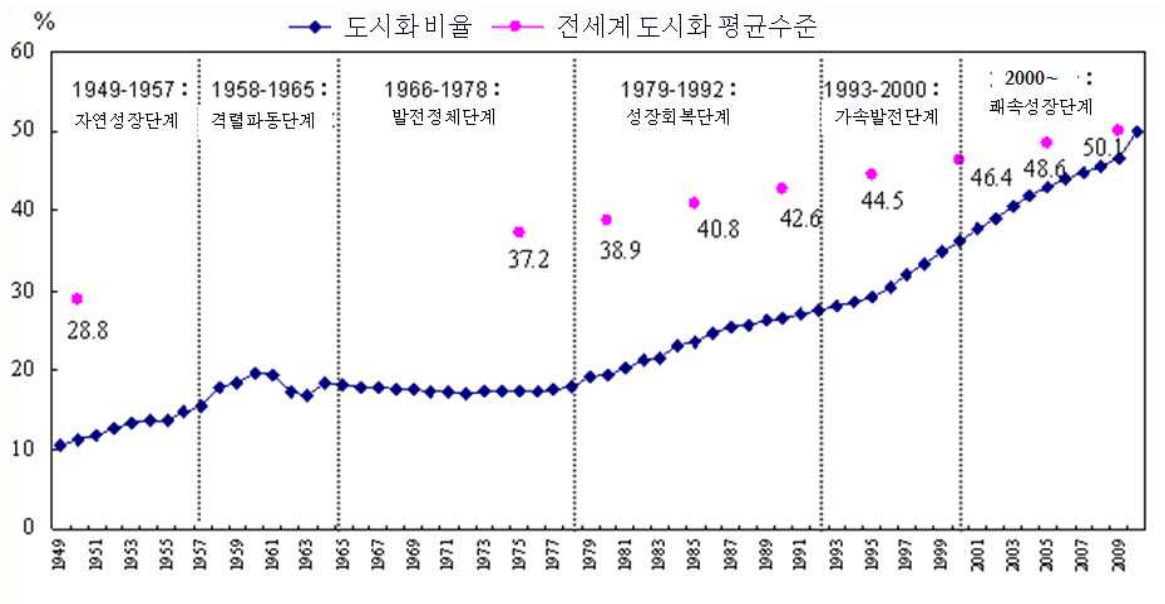
- 도시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고 도시의 활력을 증가시키며 도시의 잉여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도시직장인의 사회보험자금 부족과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도시인구의 집중 정도를 제고시켜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음.

④ 도시화는 사회의 조화로운 안정을 촉진함.

- 신세대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관리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며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의 도시정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며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구조로 인해 장기간 축적되었던 사회모순을 개선할 수 있으며 도시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빈민가를 없애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며 농민공의 도시진출 및 정착, 춘절 교통체증 등 사회적인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음. 즉 도시와 농촌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근본적인 일체화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3. 도시화 발전의 동력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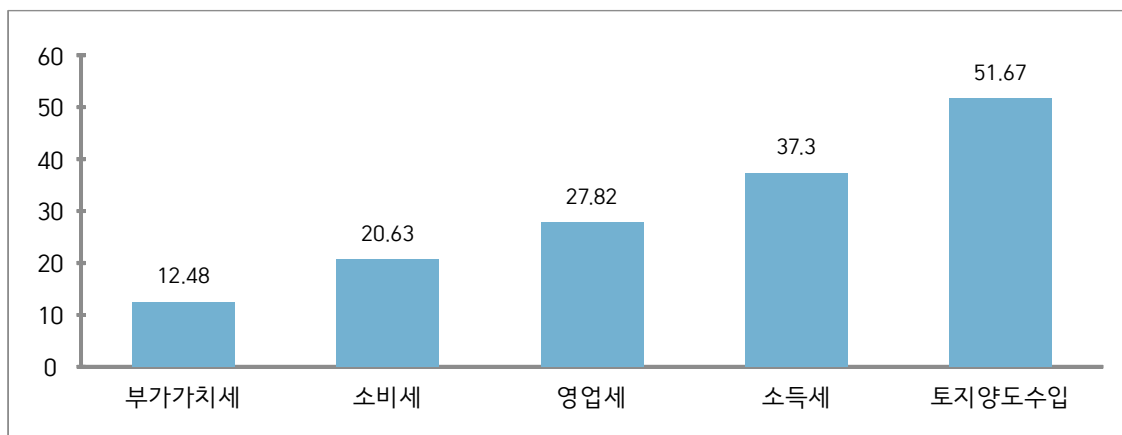
그림 1. 중국과 세계의 도시화 수준 비교



- 중국의 도시화는 세계평균수준을 넘어섰음. 2000-2017년 사이 도시화 비율은 36.2%로부터 58.5%로 증가했음. 도시인구는 기존의 4.6억으로부터 8.1억으로 늘어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2000만에 육박

① 토지 도시화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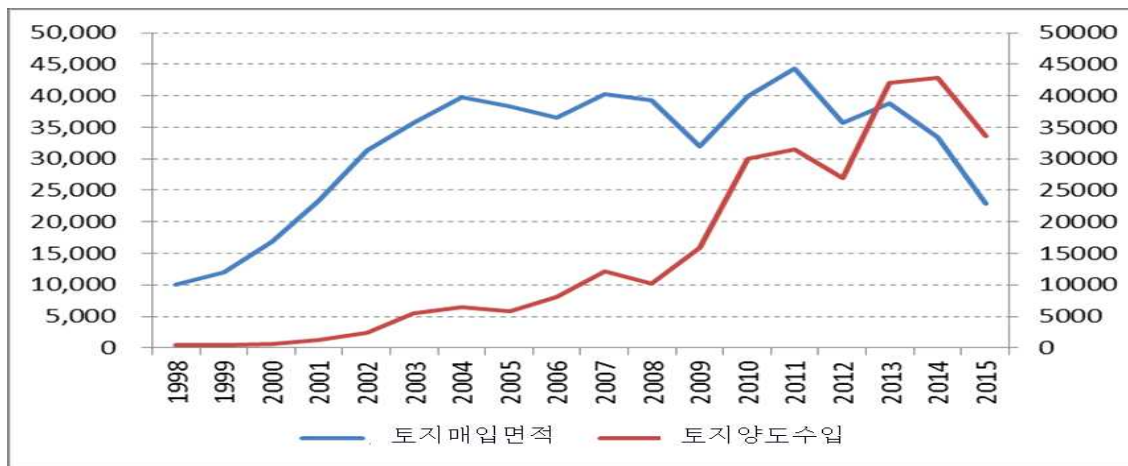
그림 2. 주요 세금 종류 및 토지양도수입의 증가 배수(1994-2015)



- 이후 토지 도시화가 형성됨. 1994년 세제개혁 이후 중앙과 지방의 수입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중앙재정수입 비중은 1993년의 22%에서 1994년에 55.7%가 되었음.

1998년 주택제도 개혁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주요수입원이 되었음.

그림 3. 토지매입면적과 토지양도수입



– 2003년부터는 토지초박괘(招拍挂)정책³⁾을 실시하기 시작함.

표 4. 토지용자규모

연도	중점도시 토지저당대출 총액 (억 위안)	해당 연도 도시투자채권 발행총액 (억 위안)	도시 보호건설자 금지출 (억 위안)	토지양도수입 (억 위안)	토지양도수입의 도시건설 사용도	
					금액 (억 위안)	비중(%)
2008	18107	1202	5008.34	10259.8	3035.32	29.58
2009	25856	4085.3	5927.07	15910.2	3355.42	21.09
2010	35300	3801	7508.08	30108.9	7621	25.31
2011	48000	4865.4	8739.07	31500	5564.88	17.67
2012	59500	12864.5	10198.13	26900	3049.2	11.91
2013	77600	9873	10804.74	42000	3775.14	8.99
2014	95100	17765.3	10658.91	42940.3	4076.29	9.46
2015	113300	17800.5	12438.63	33657.7	3531.53	10.49

– 2008년부터 토지 용자 규모가 차츰 확대됨.

3) 토지초박괘정책: 중국의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관리 제도로서 국가입찰경매방식으로 진행됨.

② 도시인구의 빠른 성장

표 5.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량 및 도시화비율의 증가량

연도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 (만 명)	연평균 도시화비율 증가(%)
1980-1985	1190.8	0.864
1985-1990	1020.2	0.54
1990-1995	995.8	0.526
1995-2000	2146.4	1.44
2000-2005	2061.2	1.35
2005-2010	2153.2	1.39
2010-2016	2053.3	1.23

- 농민의 도시진출 제한을 줄이고 평등한 대우를 통해 도시인구의 빠른 성장을 촉진함.

표 7 각 성의 인구 유출량

2000년		2010년		2015년	
순유출성	유출량	순유출성	순유출량	순유출성	순유출량
허난	472.52	허난	1302.089	허난	1691.98
안후이	424.8	쓰촨	879.6068	쓰촨	859.09
광시	334.93	안후이	810.2031	구이저우	849.07
쓰촨	255.83	광시	675.9747	안후이	776.34
구이저우	229.78	구이저우	674.3399	광시	699.46
후난	212.81	후난	438.6677	후난	426.79
장시	112.08	충칭	390.6653	장시	353.91
		후베이	368.6112	충칭	340.97
		장시	191.2801	후베이	259.63
		간쑤	129.0185	허난	189.64
		산시(陝西)	105.618	간쑤	130.19
				산시(陝西)	130.11

- 현재 농민공은 도시화의 주체가 되었음.

③ 공업화가 도시진출 농민의 취업을 해결

표 8 토지 이용 상황

연도	국유건설 용지공급 (만 ha)	공업, 광 업용지	주거용지	상업, 서 비 스 업 용지	공업, 광 업/주택	공업, 광 업 / 상 업, 서비스업
2004	26.78	12.51	5.65	----	2.21	----
2005	43.2	15.11	9.82	----	1.54	----
2006	32.9	14.6	7.4	----	1.97	----
2007	23.5	13.6	6.66	2.7	2.04	5.04
2008	16.59	8.64	5.15	2.18	1.68	3.96
2009	36.16	14.15	8.15	2.76	1.74	5.13
2010	42.82	15.27	11.44	3.87	1.33	3.95
2011	58.77	19.26	12.52	4.21	1.54	4.57
2012	69.04	20.35	11.08	4.94	1.84	4.12
2013	73.05	21	13.81	6.51	1.52	3.23
2014	60.99	14.73	10.21	4.93	1.44	2.99
2015	53.36	12.48	8.26	3.71	1.51	3.36
2016	51.8	12.08	7.29	3.46	1.66	3.49

-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진출하는 농민들의 취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음. 2차 산업은 농민공의 주요 취업 루트로 비중이 전체의 50%를 초과함.

④ 글로벌 판매제품

- 공업화의 발전을 위해 저렴하고 풍부한 공업용 토지가 제공되었음.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국제시장에 의존해 대량의 공산품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하면서 공산품의 판매에 새로운 시장 경로를 제공하게 되었음.

4. 도시화 발전 외부조건의 변화

□ 노동력 조건의 강화

표 9 연령대별 농민공 수량과 변동

연령대	2000년	2010년	변동량
1990년 이후		1518.35	1518.35
1980-1989년	1219.52	9188.22	7968.7
1970-1979년	3999.68	5736.85	1737.17
1960-1969년	2937.38	4916.83	1979.45
1950-1959년	1875.07	2862.75	987.68
1950년 이전	1308.64		

○ 도시화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노동력 조건이 강화됨.

표 10 도시와 농촌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 상황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인수 (만 명)	비율 (%)	인수 (만 명)	비율 (%)	인수 (만 명)	비율 (%)	인수 (만 명)	비율 (%)
1985	2294	17.16	11076	82.84	1266	31.93	2699	68.07
1989	2644	21.37	9729	78.63	1290	33.61	2548	66.39
1995	3889	29.47	9306	70.53	2152	43.29	2819	56.71
2000	4510	34.65	8504	65.35	2739	44.41	3428	55.59
2005	3916	36.05	6948	63.95	3387	54.88	2785	45.12
2010	4590	46.18	5350	53.82	3491	66.18	1784	33.82
2011	5861	59.05	4065	40.95	3904	77.05	1163	22.95
2016	7021	70.83	2892	29.17	3662	84.59	667	15.41

○ 교육 도시화가 앞서 발전하면서 노동력의 조건이 강화됨.

□ 도시건설용자조건의 변화

○ 도시건설용자조건에 중요한 변화, 즉 토지를 플랫폼회사에서 인수할 수 없게 되었고 재무세금체제가 상당히 큰 개혁과 조절 국면에 처하게 됨으로써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용 주택”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음.

□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 미중 무역분쟁이 큰 영향을 미쳤고 미국의 “재공업화(再工業化)” 정책과 동남아 대체효과의 영향을 받게 됨.

□ 도농관계가 지역간 관계로 변화

- 지역을 벗어난 인구이동이 많아지면서 기존의 공공자원 배치방식에 거대한 충격을 일으킴.

5. 미래 도시화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 도시화는 보편적인 법칙을 준수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기본 국정을 존중해야 함.

- 중국은 인구가 많고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환경수용력이 제한적임. 도시화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임무가 막중하며, 모순이 누적되어 집중적으로 출현함.

□ 도시화는 여전히 비교적 빠른 발전단계이나 차츰 속도가 둔화될 것임.

- 현재 중국의 도시화는 30~70%에 이르는 빠른 발전단계에 처해 있으나 품질이 저하되어 있고 도농 격차와 지역 격차가 비교적 큼. 중앙에서는 내부수요 확대전략을 실시해 도시화 발전 속도는 여전히 빠른 단계에 있음.

- 그러나 미래 경제 성장 속도가 완만하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늘어나며 전통적인 발전양식의 제한성과 농민공의 시민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시화 발전 속도 또한 완만해질 것임.

□ 도시화는 여전히 경제 성장의 거대한 동력

- 인구의 이동은 구조의 변화 및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고 생활수요를 늘림.

□ 지역간의 도시화는 균형에 도달할 것

- 중서부 지역의 도시화는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동부지역의 도시화 발전 속도는 점차 완만해질 것임. 역도시화 기회도 늘어날 것임.

표 11 지역별 도시인구와 농촌인구 비중

지역	연도	총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동부	2000	35.57	43.71	30.81
	2005	36.15	43.97	30.14
	2011	38.09	44.76	30.96
	2016	38.37	43.76	31.00
동북	2000	8.44	11.93	6.40
	2005	8.39	10.65	6.65
	2011	8.18	9.29	6.99
	2016	7.91	8.43	7.19
중부	2000	27.84	22.44	31.00
	2005	27.43	23.07	30.78
	2011	26.70	23.48	30.15
	2016	26.60	24.28	29.80
서부	2000	28.15	21.92	31.79
	2005	28.04	22.31	32.44
	2011	27.02	22.46	31.90
	2016	27.11	23.54	3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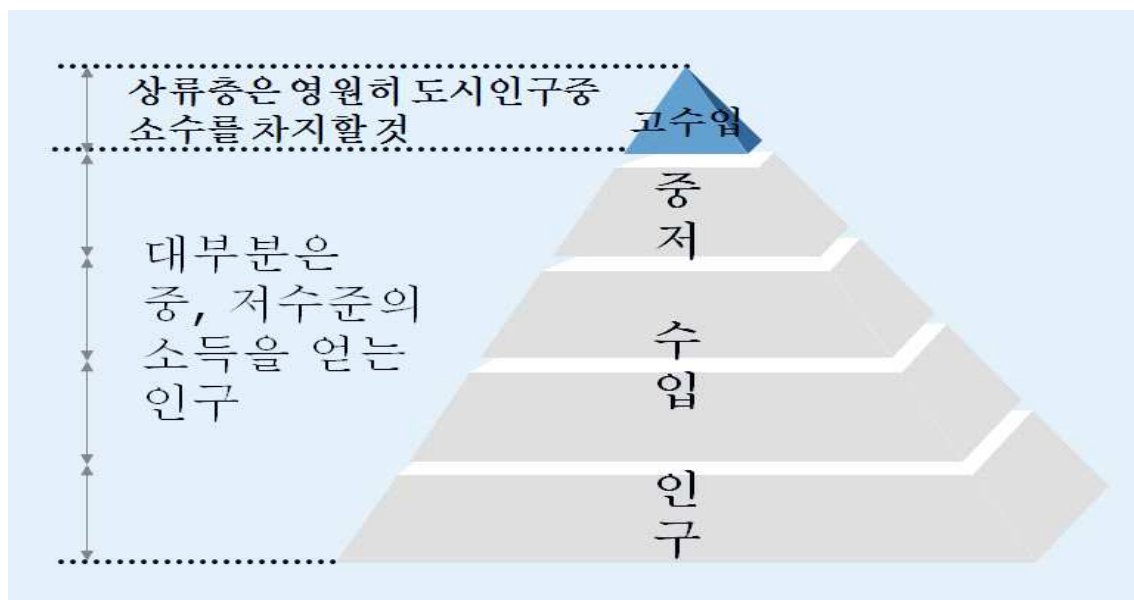
- 각 지역의 총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수용량 비율은 여전히 차이가 있고 불균형적이지만 앞으로는 삼자의 차이가 차츰 줄어들 것이며 일치에 이를 것임.

□ 도시화는 속도 중심 발전에서 속도와 품질 중시 발전 단계로 전환

- 국제금융위기의 부정적인 영향과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외부 제약이 갈수록 확대되고, 노동력과 토지비용 및 환경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국내 에너지와 자원의 병목 제약이 날로 심각해져 도시화 발전방식의 변화가 요구됨.

- 농민공이 도시로 진출하여 일하는 것에서 농민공의 시민화로 전환, 토지의 외연 확장에서 내부 잠재자원의 개조 및 집약화 사용으로 전환, 전통적인 조방식 자원이용방식에서 에너지 절약, 저탄소, 녹색, 지속가능 발전 루트로 전환함으로써 발전방식을 속도 확장에서 품질 제고로 전환할 수 있음
- 도시화는 현대공업과 전통공업, 현대서비스업과 전통서비스업이 장기 공존하는 과정
 - 신형 공업화와 현대적인 서비스업이 특대도시와 초대형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제창하며 각 도시는 전통공업, 특히 전통서비스업의 충분한 발전공간을 제공해야 함.
- 도시화 과정 중의 인구구조

그림 11. 도시화 과정의 인구구조



- 도시화 과정의 인구구조는 대다수가 중·저소득인구이고 고소득 인구는 소수에 불과한 피라미드 형태임. 이와 같은 인구구조하에서 정부의 주요임무는 중·저소득인구와 외래인구의 취업을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양호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인문도시, 녹색도시, 스마트 등 새로운 도시의 발전 기회 증가

6. 정책 제언

☐ 도시화 발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거시적인 사고가 필요함.

○ 도시의 이원화 된 인구의 평등, 도시 토지이용 기회의 평등, 상이한 행정등급 도시의 발전 기회 평등을 위해 개혁

○ 도시관리방식, 새로운 기술수단 응용, 지방 실천 장려의 혁신

☐ 농업 이전인구의 시민화를 심도 있게 추진

○ 호적제도 개혁을 적극적인 추진, 거주증을 담보로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추진, 사회보장 보급률 제고, 민영(사립)교육 장려, 농민공의 직업자격 인증체계 구축, 임대주택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 지역을 벗어난 유동인구의 공공서비스 보장 메커니즘 개선 등 조치가 요구됨

☐ 도농 건설용지제도 개혁 추진 가속화

○ 농촌택지 시장화 퇴출 메커니즘 구축, 집단건설용지 사용권의 공개거래플랫폼 구축, 농민과 집단경제조직에 토지사용 자주권 부여, 집단건설용지 세금징수체계 구축, 도시의 사용효율이 낮은 토지 재이용 추진 등 개혁 조치가 필요함.

☐ 도시화의 융자보장 메커니즘을 개선

○ 자산운용 강화, 자금이용 효율 제고, 자금관리 강화, 융자보장 메커니즘 완비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함.

☐ 행정관리체제 개혁을 강화

- 도시간 균형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도시건설모델을 개혁하며, 신설 도시관할지역을 규범화 등 추진

□ 도시화 발전의 산업 버팀목 역할 강화

- 서비스업과 공업의 배치, 신경제와 전통서비스업의 발전 관계, 내부수요와 외부수요의 관계를 원만하게 처리

□ 도시발전 형식 전환 추진

- 정부 주도에서 다원 참여로 전환하고, 부동산개발에서 토지의 종합적인 이용으로 전환하며, 대표준 건설에서 소표준 개발로 전환하고, 신도시 건설 중심에서 도시기능 완비로 전환

□ 도시관리체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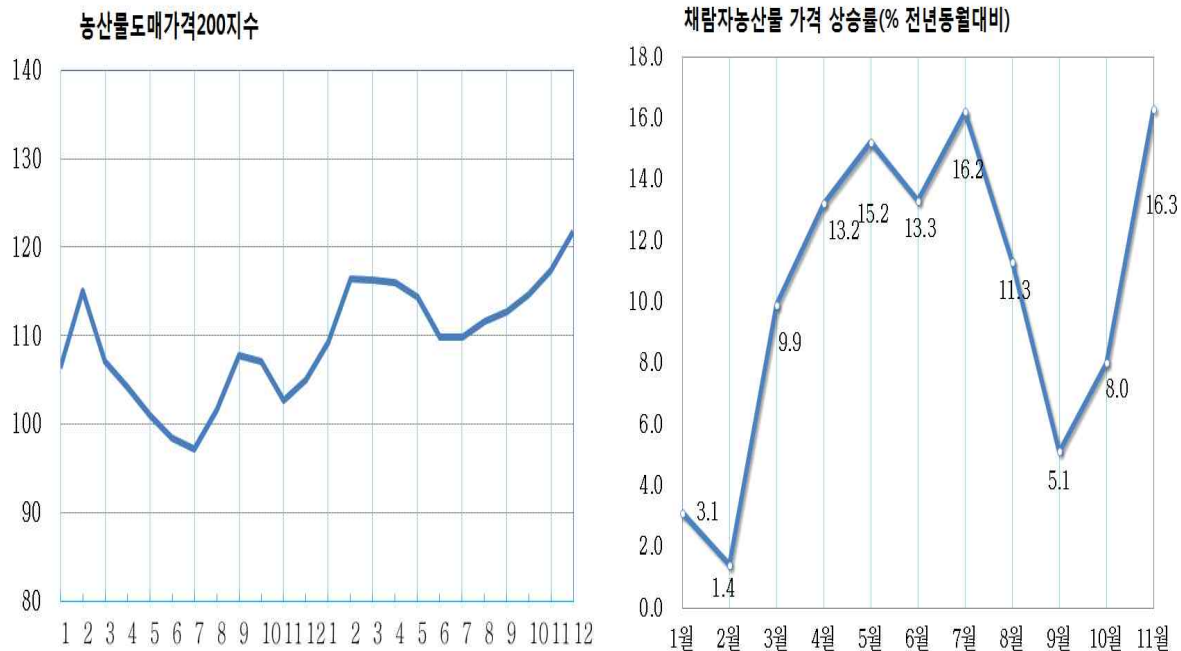
- 도시계획관리를 혁신하고 계획기능기구를 통폐합하며, 스마트 도시를 통해 주민의 도시관리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사회관리 혁신을 추진

가격 동향

◆ 농산물 도매시장가격⁴⁾

- 2019년 11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10월 대비 4.3%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4.8% 상승
- － 채람자(菜篮子)농산물의 2019년 11월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10월 대비 2.7% 상승,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무려 16.3% 상승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200지수'는 2015년=100

자료: 中国农业信息网(<http://www.agri.gov.cn>)

4) 중국은 2017년 1월부터 2000년도 기준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발표를 중단하고 2015년도 기준의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를 새롭게 발표함.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는 총 111개 품목(채소 32개, 과일 11개, 축산물 7개, 수산물 49개, 식량 7개, 유지작물 5개)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 200개의 가격에 기초하여 작성함.

○ 품목별 2019년 11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지난 10월에 비해서 과채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축산물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과일, 과채 대부분 하락

표 3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19년 7월 ~ 11월)

단위: 원, %

품목		2019년					11월 증감률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7,236	17,289	16,981	16,745	16,704	-0.25	2.75
	콩(1kg)	980	956	918	917	950	3.56	5.68
엽근 채소	배추(10kg)	2,582	2,440	2,291	1,968	1,730	-12.08	3.34
	무(18kg)	5,909	5,568	5,216	4,143	3,713	-10.37	-3.13
	양배추(8kg)	2,216	2,076	1,846	1,628	1,704	4.66	0.00
	당근(20kg)	8,686	8,284	7,648	6,871	6,655	-3.15	-20.36
	감자(20kg)	7,866	8,043	7,379	7,105	7,254	2.10	4.26
양념 채소	건고추(600g)	3,188	3,123	2,913	3,102	3,324	7.16	17.68
	양파(kg)	352	361	339	329	354	7.86	21.78
	마늘(kg)	1,452	1,457	1,354	1,321	1,389	5.17	73.34
	대파(kg)	651	579	504	437	388	-11.29	-20.25
과일	쪽파(kg)	799	944	1,004	974	922	-5.37	12.05
	사과(부사, 15kg)	34,010	30,857	26,280	19,413	17,045	-12.20	10.60
	배(풍수, 15kg)	22,237	14,926	11,144	9,707	9,658	-0.50	-29.77
	복숭아(kg)	857	715	718	844	873	3.50	-35.03
	포도(거봉, 5kg)	8,917	6,574	5,618	5,237	5,690	8.65	-11.72
	감귤(만다린, kg)	1,418	1,036	825	694	574	-17.27	-1.92
과채	감(10kg)	6,310	7,871	6,907	5,270	5,823	10.49	2.05
	딸기(2kg)	6,166	6,623	7,527	7,142	8,784	23.00	-28.75
	토마토(10kg)	4,326	4,468	4,380	5,554	6,139	10.54	-22.29
	오이(kg)	436	560	483	605	850	40.43	60.42
축산물	수박(kg)	422	359	345	460	554	20.36	-3.45
	쇠고기(kg)	10,453	10,862	11,297	11,369	11,648	2.45	20.95
	돼지고기(kg)	4,025	4,867	6,009	7,448	7,799	4.71	149.37
버섯	닭고기(kg)	2,808	2,983	3,172	3,244	3,431	5.75	17.24
	느타리버섯(2kg)	2,394	2,757	2,412	2,181	1,963	-10.01	4.29
	새송이버섯(2kg)	1,980	2,100	2,180	2,018	1,966	-2.55	-6.08
	팽이버섯(2kg)	1,990	2,076	2,116	2,128	2,179	2.41	2.34
임산물	표고버섯(2kg)	3,748	4,004	3,844	3,843	3,753	-2.32	7.29
	밤(kg)	1,113	1,368	1,311	1,571	1,630	3.78	-12.48
	대추(kg)	2,308	889	955	1,044	2,246	115.12	-38.59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国农业信息网 (<http://www.agri.gov.cn>)

◆ 소비자물가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 2019년 11월 소비자물가는 10월 대비 0.7% 상승,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
- 이 중 식품가격은 전월 대비 1.8% 상승, 전년 동월 대비는 19.1% 상승
- 11월 식품가격 상승은 육류와 조란이 주도(각 74.5%, 10.1% 상승). 과일 가격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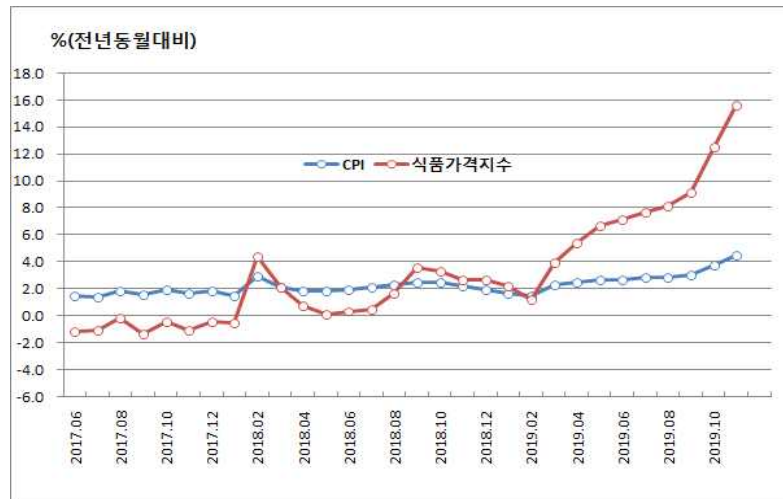


표 4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구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9.8	'19.9	'19.10	'19.11	'19.8	'19.9	'19.10	'19.11
소비자물가지수(CPI)	0.7	0.9	0.9	0.4	2.8	3	3.8	4.5
◦ 식품·담배 및 주류	2.2	2.6	2.7	1.5	7.3	8.4	11.4	13.9
식품	3.2	3.5	3.6	1.8	10	11.2	15.5	19.1
– 식량	0.1	0	0.1	0.2	0.7	0.6	0.5	0.7
– 육류	15	15	14.7	4.8	30.9	46.9	66.8	74.5
– 조란(鸡蛋)	5	6.7	-1.3	-0.5	3.6	8.2	10.4	10.1
– 수산물	0.9	-0.2	-1.1	-0.5	1.5	2.9	2.7	2.4
– 신선채소	2.8	-2.4	-1.7	1.4	-0.8	-11.8	-10.2	3.9
– 신선과일	-10.1	-7.6	-5.7	-3	24	7.7	-0.3	-6.8
◦ 의류 및 복장	-0.3	0.8	0.3	0.3	1.6	1.6	1.1	1.1
◦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	0	0.1	-0.1	0.7	0.6	0.6	0.4
◦ 의료보건	0.2	0.1	0.1	0.1	2.3	2.2	2.1	2
◦ 교통 및 통신	-0.2	-0.4	0.1	-0.3	-2.3	-2.9	-3.5	-2.8
◦ 교육·문화 및 오락	0	0.1	0.1	-0.7	2.1	1.7	1.9	1.7
◦ 주택(거주)	0.1	0.1	0	0	1	0.7	0.5	0.4
◦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1.4	0.9	0.1	-0.8	4.7	5.8	5.5	4.5

주: 육류는 가금육을 포함하지 않음(2016년 1월부터 CPI 구성 항목 조정).

자료: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agri.gov.cn>)

무역 동향

◆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 2019년 10월 농산물 수출액은 57.03억 달러로 지난 9월에 비해 4.5%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3.1% 증가

표 5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2018년 12월, 2019년 8월~10월)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18년	2019년				10월 증감률		
		12월	8월	9월	10월	합계 (1~10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544.0	41.0	45.0	35.0	367.0	-22.2	-28.6	-11.1
02류	육과 식용설육	868.0	73.0	76.0	72.0	678.0	-5.3	-8.9	-3.4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1,578.0	964.0	46.0	49.0	1,381.0	6.5	8.9	-6.1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2,388.0	45.0	185.0	168.0	1,872.0	-9.2	4.3	-7.8
06류	산수목·꽃	551.0	213.0	33.0	34.0	523.0	3.0	17.2	10.3
07류	채소	9,710.0	33.0	856.0	906.0	7,435.0	5.8	0.8	-4.3
08류	과실·견과류	5,756.0	832.0	680.0	875.0	4,681.0	28.7	40.9	6.1
09류	커피·차·향신료	3,391.0	524.0	297.0	277.0	3,187.0	-6.7	3.0	13.8
10류	곡물	1,139.0	325.0	47.0	94.0	1,182.0	100.0	17.5	34.0
11류	제분공업제품	796.0	93.0	75.0	75.0	702.0	0.0	10.3	7.3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2,622.0	76.0	164.0	270.0	2,110.0	64.6	33.7	5.9
13류	식물성엑스	1,565.0	146.0	111.0	117.0	1,315.0	5.4	-6.4	1.5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237.0	120.0	9.0	12.0	215.0	33.3	20.0	2.4
15류	동식물성유지	998.0	9.0	104.0	103.0	849.0	-1.0	5.1	5.1
16류	육·어류조제품	9,427.0	126.0	797.0	736.0	6,993.0	-7.7	-16.2	-7.3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2,601.0	705.0	167.0	167.0	2,065.0	0.0	3.7	-8.6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523.0	164.0	41.0	39.0	437.0	-4.9	0.0	2.1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856.0	38.0	198.0	188.0	1,646.0	-5.1	-2.6	12.3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7,629.0	201.0	640.0	664.0	5,888.0	3.8	1.7	-4.8
21류	기타 조제식품	3,963.0	626.0	332.0	335.0	3,481.0	0.9	12.8	5.0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2,465.0	332.0	220.0	160.0	1,868.0	-27.3	-22.3	-9.4
23류	조제사료	3,073.0	172.0	215.0	210.0	2,255.0	-2.3	-12.9	-13.2
24류	담배	1,527.0	237.0	117.0	117.0	1,170.0	0.0	-7.9	4.0
합 계		65,207	6,095	5,455	5,703	52,300	4.5	3.1	-1.1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2019년 10월 농산물 수입액은 94.98억 달러로 전월 대비 9.1%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8.6% 증가

– 10월 주요 수입품목군은 HS 12류(28.8%), HS 02류(18.2%), HS 15류(10.1%), HS 19류(6.3%), HS 08류(6.0%), HS 22류(4.9%), HS 04류(4.5%) → CR₇ 78.8%

표 6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2018년 12월 ~ 2019년 8월~10월)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18년	2019년				10월 증감률		
		12월	8월	9월	10월	합계 (1~10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410.0	47.0	34.0	61.0	419.0	79.4	144.0	22.9
02류	육과 식용설육	11,017	1,505	1,624	1,730	14,116	6.5	104.7	55.4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6,035.0	1,315	429.0	430.0	5,928.0	0.2	20.8	15.4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1,210.0	530.0	65.0	65.0	1,185.0	0.0	47.7	8.3
06류	산수목·꽃	325.0	68.0	31.0	25.0	280.0	-19.4	-10.7	3.3
07류	채소	1,923.0	20.0	89.0	101.0	1,237.0	13.5	-40.2	-24.3
08류	과실·견과류	8,024.0	121.0	881.0	566.0	8,668.0	-35.8	16.0	31.2
09류	커피·차·향신료	1,370.0	1,209	95.0	87.0	1,918.0	-8.4	58.2	51.9
10류	곡물	5,522.0	110.0	385.0	362.0	3,913.0	-6.0	21.1	-20.1
11류	제분공업제품	1,424.0	300.0	110.0	89.0	1,293.0	-19.1	-8.2	7.3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39,000	94.0	3,555	2,740	28,363	-22.9	-18.9	-14.9
13류	식물성엑스	4,755.0	4,000	33.0	34.0	4,309.0	3.0	25.9	-8.3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161.0	36.0	11.0	10.0	147.0	-9.1	-9.1	7.3
15류	동식물성유지	7,881.0	11.0	849.0	958.0	7,093.0	12.8	40.9	12.9
16류	육·어류조제품	1,085.0	866.0	33.0	35.0	1,131.0	6.1	9.4	12.8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1,385.0	36.0	180.0	181.0	1,171.0	0.6	19.9	2.3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802.0	193.0	87.0	89.0	763.0	2.3	-11.9	22.5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6,040.0	64.0	564.0	597.0	5,307.0	5.9	-8.7	9.4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1,973.0	724.0	120.0	122.0	1,758.0	1.7	7.0	4.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3,078.0	123.0	420.0	362.0	2,887.0	-13.8	9.0	12.2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6,134.0	304.0	454.0	463.0	4,619.0	2.0	-3.1	-9.9
23류	조제사료	3,926.0	504.0	323.0	230.0	3,455.0	-28.8	-25.8	-0.1
24류	담배	2,175.0	441.0	75.0	161.0	1,956.0	114.7	120.5	0.3
합 계		115,655	12,621	10,447	9,498	101,916	-9.1	8.6	3.6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대 세계 식량 수출입

- 2019년 11월 3대 곡물(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138.4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45.9%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46.1% 감소
 - － 품목별로 보면 쌀 수출량이 130.7천 톤으로 3대 곡물 수출량의 94.4%를 차지. 쌀 수출량 전월에 비해 47.8%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7.5% 감소
 - － 11월 한국에 대한 쌀 수출량이 33천 톤으로 1위 기록

표 7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2019년8월 ~ 11월)

단위: 천 톤, %

품목	국가	2018년	2019년8월~2019년11월				11월 증감률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한국	0.2	15.0	0.0	0.0	33.0	149900.0	352.1	-11.9
	북한	43.5	32.1	33.5	16.7	8.2	-50.6	-23.0	313.9
	일본	73.6	0.1	0.0	0.0	0.1		-99.3	-48.6
	홍콩	23.7	2.2	1.8	1.7	1.8	6.8	-26.1	-3.4
	몽골	26.2	4.1	2.9	2.3	3.6	55.8	21.1	46.1
	기타	1,921.9	194.7	54.3	229.8	84.0	-63.5	-60.7	40.9
	합 계	2,089.1	248.1	92.5	250.5	130.7	-47.8	-47.5	39.8
이 중 － 중단립종쌀 (백미)	북한	43.5	32.1	33.5	16.7	8.2	-50.6	-23.0	313.9
	일본	72.9	0.1	0.0	0.0	0.1		-99.3	-49.4
	몽골	26.2	4.1	2.9	2.3	3.6	55.8	21.1	46.1
	한국	0.0	0.0	0.0	0.0	0.0			
	홍콩	23.6	2.2	1.8	1.7	1.8	6.8	-26.1	-3.4
	기타	1694.7	192.1	47.0	224.3	80.1	-64.3	-61.7	41.8
	합 계	1,861.0	230.6	85.2	245.0	93.9	-61.7	-60.4	44.9
밀	합 계	49.6	2.1	0.0	5.2	5.8	11.6	-21.5	0.3
옥수수	북한	4.3	0.3	0.0	0.0	1.7		82700.0	360.1
	미국	0.3	0.0	0.0	0.0	0.0			
	캐나다	5.2	0.0	0.0	0.0	0.0		-100.0	-76.9
	기타	2.1	0.0	0.0	0.1	0.3	425.0	5.4	-49.7
	합 계	12.0	0.3	0.0	0.1	2.0	3185.0	264.3	69.1
대두	한국	44.4	3.4	0.1	2.6	9.7	271.6	96.5	13.1
	일본	26.6	0.9	1.4	1.4	1.3	-6.5	-34.8	-6.8
	미국	13.0	0.0	0.1	0.1	0.1	100.0	14.9	-96.1
	기타	49.9	2.9	3.7	2.5	3.7	47.7	-2.4	-8.4
	합	133.9	7.3	5.2	6.6	14.8	124.9	36.6	-11.4

자료: www.gtis.com/gta/

표 8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2019년8월~11월)

단위: 천 톤, %

품목	국가	2018년	2019년 8월~2019년 11월				11월 증감률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태국	899.2	16.1	17.2	17.4	37.9	1.1	-79.0	-40.5
	베트남	1,449.6	24.6	41.5	35.0	31.7	-15.8	-69.2	-68.0
	파키스탄	342.3	12.5	3.7	6.9	46.9	86.6	-17.7	79.8
	기타	344.3	71.5	114.3	117.9	139.0	3.2	151.7	184.5
	합 계	3,035.5	124.6	176.7	177.1	255.4	0.3	-29.6	-23.8
이 중 - 장립종쌀 (백미)	태국	475.5	8.3	7.3	6.6	18.2	-9.3	-86.3	-25.9
	베트남	1,331.3	19.2	27.3	18.2	12.4	-33.5	-81.6	-73.7
	파키스탄	233.9	9.0	1.1	3.7	35.4	226.3	56.9	101.4
	기타	303.1	67.5	113.1	114.8	127.9	1.4	190.8	210.7
	합 계	2,343.9	104.0	148.9	143.3	193.9	-3.8	-24.1	-22.4
밀	러시아	27.4	5.2	2.6	0.1	0.3	-96.9	-94.6	37.4
	호주	0.6	0.0	0.0	0.0	0.0			-51.9
	캐나다	2.5	0.1	0.2	0.3	0.4	22.7	182.2	-13.6
	기타	0.4	0.1	0.2	0.2	0.6	24.2	841.7	1,421.6
	합 계	30.9	5.4	3.0	0.6	1.3	-81.5	-65.1	37.4
보리	호주	4,178.4	150.3	103.1	46.8	0.0	-54.6	48.7	-44.2
	캐나다	1,679.9	19.7	40.6	39.2	149.8	-3.4	-73.6	-22.0
	우크라이나	382.2	12.2	538.9	280.8	41.9	-47.9		117.7
	프랑스	574.3	170.9	168.4	292.9	209.6	74.0	97.5	58.8
	기타	0.5	5.4	4.1	16.8	8.7	307.1	-	15,495
	합 계	6,815.4	358.6	855.2	676.5	410.0	-20.9	106.2	-19.6
옥수수	미국	312.3	62.0	63.0	58.3	0.5	-7.5	5,274.8	-15.3
	라오스	139.3	14.8	5.8	18.4	25.6	219.2	-46.0	-42.3
	불가리아	0.1	0.0	0.0	1.0	0.0			1,578.8
	우크라이나	2,929.9	110.0	32.0	0.0	58.5	-100.0		39.4
	미얀마	100.5	47.6	38.7	10.9	8.3	-71.9	-76.1	73.3
	기타	-3,090.0	-1.9	0.1	2.6	5.6	2,514.1		49.7
	합 계	392.0	232.4	139.6	91.1	98.4	-34.7	12.8	32.6
대두	미국	7,064.9	1,675.0	1,730.2	1,147.3	2,555.4	-33.7	1,613.6	-31.4
	캐나다	765.0	7.4	73.7	3.7	4.8	-95.0	-94.6	142.4
	브라질	28,850.1	6,684.8	4,788.9	3,793.2	3,857.5	-20.8	-41.9	-13.5
	아르헨티나	619.9	654.6	976.5	959.9	1,417.1	-1.7	2,791.4	389.0
	기타	-33,731.5	458.9	627.3	277.2	443.0	-55.8	25.3	34.6
	합 계	3,568.3	9,480.7	8,196.6	6,181.4	8,277.8	-24.6	-10.7	-8.0

자료: www.gtis.com/gta/

- 2019년 11월 대두 수출량은 14.8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24.9%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36.6% 증가
- 2019년 11월 4대 곡물(쌀, 밀, 보리, 옥수수)의 수입량은 765.1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9.1% 감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45% 증가
 -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보리가 410천 톤(5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쌀이 255.4천 톤(33.4%), 옥수수 98.4천 톤(12.9%) 순
- 2019년 11월 최대 수입 곡물인 보리 전월에 비해 39.4%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88% 증가
-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특히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⁵⁾ 2019년 11월 수입량은 전월 대비 44.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5.5% 감소
 - 11월 쌀 수입량 중 백미(精米)가 193.9천 톤으로 75.9%를 차지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파키스탄 18.4%, 태국 14.8%, 베트남 12.4% 순
- 2019년 11월 옥수수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8.0%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6.7% 감소, 누적기준 1~11월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30.7% 증가
- 2019년 11월 밀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123.4%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28.7% 감소. 누적기준 1~11월 밀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33.5% 증가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캐나다가 28.5%로 비중 차지
- 2019년 11월 대두 수입량은 8,277.8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33.9%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53.7% 증가, 전년 동기대비 4.0% 감소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브라질 46.6%, 미국 30.9%, 아르헨티나 17.1%, 캐나다 0.1%
→ CR₃ 94.6%

5)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50%, 비국영무역(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50%를 차지. 2017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이며 장립종과 중단립종이 각각 50%(266만 톤), 50%(266만 톤) 차지

◆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 2019년 11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약 2.5억 달러로 전월 대비 16.1%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5.7% 증가
 - 주요 수출품목류는 농산가공품(47.3%), 채소(26.1%), 특용·잡사(12.1%), 식량(6.8%), 축산물(3.0%)
 - 상위 10개 품목: 캐프시컴속 또는 피텐타속의 열매(5.5%), 광천수와 탄산수(5.0%), 김치(4.8%), 전분박과 유사한 박류(4.8%), 참깨(3.6%), 소스, 소스 조제용품(2.7%), 들깨(2.4%), 당면(2.3%), 채소류 조제품(2.1%), 신선 냉장 한약재(1.9%), → CR₁₀ 35.3%

표 9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2019년 10월 ~ 11월)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19년			11월 증감률		
			10월	11월	합계(1~11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산물	식량	곡류	1441	2852	107696	97.8	-59.3	-10.4
		서류	863	711	7615	-17.6	1.6	17.2
		두류	8301	11488	84398	38.4	26.0	1.3
		전분	1827	2696	26560	47.5	-20.2	-9.8
		계	12433	17747	226269	42.7	-12.1	-5.5
	채소		58494	68284	593183	16.7	7.4	-4.8
	과실		6705	6888	72266	2.7	-11.0	-1.8
	화훼		1559	1675	24676	7.4	-6.7	16.2
	버섯		4042	3844	30574	-4.9	3.0	-2.3
	특용·잡사	채유종실	20237	23022	160503	13.8	2.5	6.8
		차류	173	367	4819	111.4	89.4	0.7
		연초류	209	350	5133	67.4	-51.9	-41.5
		인삼류	325	61	2350	-81.2	-71.2	57.4
		한약재	5942	7331	71875	23.4	0.5	12.6
		잡사류	1534	681	12009	-55.6	-54.9	-16.7
		계	28421	31811	256689	11.9	-1.8	5.4
	농산가공품		107251	123917	1221154	15.5	11.7	1.7
	소 계		218904	254166	2424810	16.1	5.7	-0.4
축산물	산동물		1336	464	6517	-65.3	25.5	2.8
	육류		3978	5071	42953	27.5	-9.8	1.8
	난류		76	319	2937	322.1	41.9	1.0
	낙농품		0	1	41	1100.0	-85.0	-94.5
	기타 축산물		1324	1956	10929	47.8	194.5	-30.4
	소 계		6713	7810	63377	16.3	13.4	-6.6
합 계			225617	261976	2488187	16.1	5.9	-0.5

자료: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 2019년 11월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약 7,943만 달러로 전월 대비 0.2%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58.3% 증가, 전년동기대비 4.9% 증가

- 주요 수입품목류는 농산가공품(67.8%), 과일(13.4%), 축산물(12.9%), 특용·잠사(4.0%)
- 상위 10개 품목: 라면(15.4%), 자당(11.8%), 조제분유(6.9%), 맥주(6.0%), 과일주스(4.4%), 알코올 미함유 음료(3.4%), 소스 제조용품(3.1%), 커피엑스(2.4%), 견과류조제품(2.3%), 신선포도(2.2%), → CR₁₀ 61.1%

표 10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2019년 10월 ~ 11월)

단위: 천 달러, %

품 목 명			2019년			11월 증감률		
			10월	11월	합계(1~11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188	164	2395	-13.1	-91.9	-21.8
		서류	36	14	544	-62.3	-93.5	-2.0
		두류	1	0	56	-100.0	-100.0	-69.1
		전분	35	4	67	-88.5	166.7	39.0
		계	261	181	3062	-30.4		-20.4
	채소		1605	1592	15047	-0.8	545.8	4.9
	과실		7844	12187	93020	55.4	405.9	8.6
	화훼		71	17	935	-76.2	-99.8	-47.3
	버섯		70	57	202	-18.2	-72.1	314.3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63	0	83	-100.0	-100.0	-93.0
		차류	189	101	882	-46.5		-21.1
		연초류	1082	384	14036	-64.5	594.9	21.0
		인삼류	5809	3038	62284	-47.7	744.8	33.6
		한약재	169	82	954	-51.6	-98.3	-22.3
		잠사류	0	0	143		-100.0	41.4
		계	7312	3605	78381	-50.7	1,802,550.0	26.8
	농산가공품		62416	61790	604489	-1.0	1,061.4	2.4
소 계		79579	79430	795136	-0.2	58.3	4.9	
축 산 물	산동물		0	4	265	1,800.0	-100.0	-14.4
	육류		150	136	1140	-9.4		-39.1
	난류							
	낙농품		9494	8219	88687	-13.4		0.3
	기타 축산물		3374	3358	39710	-0.5	-70.5	-8.0
	소 계		13019	11717	129801	-10.0	217.6	-3.0
합 계			92598	91147	924937	-1.6	501.5	3.7

자료: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표 11 2019년 11월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캐프시컴속	14,307.3	5.5	라면	14,030.6	15.4
2	광천수와 탄산수	13,214.3	5.0	자당	10,754.4	11.8
3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12,679.3	4.8	조제분유	6,273.9	6.9
4	전분박 이와 유사 박류	12,581.7	4.8	맥주	5,461.2	6.0
5	참깨	9,455.3	3.6	기타과실주스 주기제것	4,045.7	4.4
6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7,124.5	2.7	알코올 미함유 음료	3,071.2	3.4
7	들깨	6,353.8	2.4	조제품 기타	2,918.3	3.2
8	당면	6,109.1	2.3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2,812.6	3.1
9	채소류 조제품	5,620.6	2.1	커피엑스, 에센스 농축물	2,205.6	2.4
10	신선·냉장 한약	5,055.5	1.9	견과류 조제품	2,132.4	2.3
11	개사료	5,013.5	1.9	포도(신선)	1,999.3	2.2
12	대두(콩나물용)	4,811.7	1.8	과실주스 음료	1,731.5	1.9
13	냉동채소	4,312.1	1.6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1,554.1	1.7
14	캔디류	4,162.2	1.6	그레인 스플릿	1,409.5	1.5
15	전화당,당시럽 혼합물	4,145.5	1.6	밀크, 크림	1,147.9	1.3
16	스테비오사이드	3,969.3	1.5	프로필렌글리콜	1,108.8	1.2
17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3,859.2	1.5	유자(기타방법 조제)	1,048.3	1.2
18	땅콩	3,442.7	1.3	홍삼조제품	971.0	1.1
19	양모로 만든 것	3,359.9	1.3	아미노산(기타)	957.7	1.1
20	맥주	3,004.5	1.1	과실견과기타	885.0	1.0
21	팥	3,000.0	1.1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862.7	0.9
22	채유종자, 과실 분, 조분	2,900.1	1.1	홍삼(기타/본삼)	860.1	0.9
23	과실견과기타	2,881.8	1.1	캔디류	829.3	0.9
24	아조디카본아미드	2,869.6	1.1	베이커리 제품	798.1	0.9
25	조제품 기타	2,850.3	1.1	소주	769.5	0.8
26	버섯의 종균	2,636.2	1.0	곡류 조제품	755.3	0.8
27	젤라틴	2,450.0	0.9	기타(채소종자)	739.0	0.8
28	아미노산(기타)	2,445.9	0.9	인삼음료	696.2	0.8
29	당근(신선, 냉장)	2,229.3	0.9	소나 마속동물의 원피	686.3	0.8
30	고구마(전분)	2,172.0	0.8	스위트 비숫킷	554.4	0.6
31	미과	2,080.7	0.8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	547.4	0.6
32	코코아 조제품	2,078.0	0.8	고추장	514.7	0.6
33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2,049.1	0.8	아이스크림	504.0	0.6
34	기타(채소종자)	2,046.9	0.8	무종자	452.3	0.5
35	포도당	1,995.3	0.8	락트산의 에스테르	447.6	0.5
	합 계	169,267.2	64.6	합 계	76,535.9	84.0

자료: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